

## CASES

## 조정중재사례 소개

## | 명예훼손 사례 | 반론 취재가 부족했던 방송 기사, 옴부즈맨 프로그램 통해 반론 보도

A 방송사는 아파트 난방비 문제를 전하면서 신청인 아파트에서도 난방비가 0원인 가구가 33곳이나 되고, 이는 계량기 점검 권한이 있는 관리사무소가 점검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해당 아파트 계량기는 조작이 불가능하고 계량기 점검에도 이상이 없어 부당하게 난방비를 내지 않은 가구는 없다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심리결과, A 언론사가 반론보도 방송 의사를 밝혀 조정이 성립했다. 이후 A 방송사는 자체 옴부즈맨 프로그램에서 반론보도를 방송했다.

## | 초상권침해 사례 | 초상 사용에 동의, 손해배상청구 기각 결정

B 신문사는 모 백신업체가 노숙인 등 취약계층에게 무료로 독감예방 접종을 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접종 중인 신청인의 초상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보도했다. 신청인은 사진촬영거부 의사를 명시적으로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의 없이 초상을 촬영·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편, 해당 백신업체 행사를 홍보를 담당한 업체는 신청인에게 촬영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였고 촬영·보도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며 신청인의 서명이 담긴 촬영·배포·판권소유에 관한 동의서를 중재부에 제출했다. 중재부는 조정대상기사의 초상이 신청인의 동의하에 촬영된 것으로 보이고, 피신청인이 사회 일반의 상식과 통념상 허용되었다고 보이는 범위를 벗어나 공표했다거나 신청인이 예상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공표했다고 볼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 결정했다.

## 독자마당

언론중재위원회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론  사람]을 읽고 나서 느낀 점 등을 성명, 연락처와 함께 이메일(pac\_news@pac.or.kr)로 보내주세요. 의견이 채택된 분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장영란** \_ 먼저 「언론  사람」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처음 책자를 접할 땐 원지도 모르고 너무 어려울 것이라는 선입견에 나하고 별 상관없는 책이라 생각했는데, 우연히 책자를 넘겨보았는데 알차고 유익한 내용들과 이해하기 쉽고 생활에 필요한 상식들, 꼭 알아야 할 알찬 내용들이 너무 좋아서 오래 전부터 기다리며 꼭 챙겨보게 된 애독자가 됐습니다. 맨 앞 페이지의 '언론중재위원회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를 통해 언론피해구제 상담, 언론분쟁의 조정중재, 선거기사심의, ADR전문교육 그리고 언론피해예방 교육 등등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상세하게 알게 돼 큰 공부가 됐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환절기 건강하시고 「언론  사람」 모든 가족들의 행운과 행복을 바랍니다.

**최남이** \_ 11월호 <나이를 먹는다는 것>을 읽고 80대인 나에게 큰 공감을 주었다고 봅니다. 솔직히 연도나 나이라는 것이 사람이 제도적으로 만든 인위적인 숫자에 지나지 않을 뿐 실체는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어도 연령에 연연하지 말고 나의 정신적, 육체적 기능과 수준에 비추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즐겁고 기쁘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행복이고 실질적인 나이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나이가 든다고 억울해할 필요도 없는 것이 누구에게나 시간은 공평하며 똑같이 흘러가기 때문이죠. 따라서 가장 현명한 삶이란 내 나이를 지나치게 의식하지 말고 현재 내 나이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즐겁게 하고 절대 과욕을 부리지 않으며 채식과 운동을 적절히 하여 건강을 최우선시하며 평범하게 사는 것이라고 봅니다.

**황지환** \_ 광화문에서 언론중재위원회 건물을 보기는 했으나 정확히 어떤 업무를 하는지를 몰랐는데, 「언론  사람」 2페이지에 업무내용을 간략히 잘 표현해서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특히 선거기사 심의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정후기 '쿠오바디스, 인터넷'을 통해 변화하는 사회에서 언론의 역할과 부작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해에 대한 사과, 기사삭제 외에 블로그까지 삭제해야 하는 상황이라든가 검색엔진의 광고, 링크와 관련된 사항까지 언론중재위원회의 취급분야가 점점 더 광범위해지고 고도화된 만큼 일반시민의 관심도 커져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분야에 대한 민첩한 대응 기대하겠습니다.